



한덕수 총리, 호우피해 긴급 점검

- 하천 범람 및 산사태 피해, 농작물 및 농경지 피해, 고위험 저수지 관리, 구조활동 등 호우 위험분야 점검
- 홍수상황통합관리시스템 CCTV로 위험 하천별 수위 점검

- 한덕수 국무총리는 7월 15일(토) 14시 30분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 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기관별 호우 피해 및 대처상황을 긴급 점검했다.
 - * 행안부, 농식품부, 환경부, 산림청, 소방청
- 한 총리는 환경부 홍수상황통합관리시스템 CCTV를 통해 위험 하천별 수위를 점검하고, 산사태 피해상황, 농작물 및 농경지 피해상황, 고위험 저수지 관리 상황, 구조활동 진행상황 등을 일일이 점검했다.
- 한 총리는 지하차도 침수사고, 산사태 및 붕괴사고 등과 관련하여 “많은 비가 내리고 있어 이러한 사고가 많이 일어날 수 있다”고 말하고, “모든 관계부처와 지자체와 협력해서 적극적으로 사전에 통제하고, 위험지역 주민들은 과감하게 대피시켜 달라”고 당부했다.
 - 특히, “위험이 예상되는 지하차도 등에 대해서는 경찰에서도 도로관리청과 함께 적극 통제하라”고 지시했다

담당 부서	국무조정실	책임자	과 장	신강민 (044-200-2346)
	안전환경정책관실	담당자	사무관	김민수 (044-200-2348)

